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 한 부부의 사진 43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철도국 직원이었던 바그너라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부터, 해마다 새해가 되면, 부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려 43년 동안이나… 같은 방, 같은 자리에서…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43년 동안 매년 찍었던 거죠. 사진 한장 한장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데, 부부가 조금씩 늙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노 부부가 빈 식탁에 힘없이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20대 때의 이쁘고 활기있고 희망차 보이는 부부의 사진과, 마지막 죽음을 앞둔 노부부의 사진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같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서로 다른 얼굴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해 반대 시위라는 것도 한답니다. 새해야 말로 무덤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비극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축제나 파티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참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백살까지 살았던 피아니스트 헤르츠 좀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살 한살 더 먹을때 조금씩 더 행복해지더라”고 말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내가 새로 받아든 이 새해라는 백지위에 무엇을 그려 넣을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새로운 한해는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표지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올 한 해도 거저 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때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하루가 다 기적이죠.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말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배만 고프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내 아이들에게 한끼 식사만이라도 해 줄수 있다면’하고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새해 첫날, 참으로 정말 은혜로운 날입니다. 지난 날의 상처와 후회, 미련, 아쉬운, 서운함 다 잊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살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 수록 내 마음 안의 행복도 커집니다.

일반인들과 신앙인들을 구별하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꼭 감사할일이 생겨야만 감사를 하는데, 참된 신앙인들은 감사할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하고 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할때 나옵니다. 교만하거나, 고집세거나, 잘난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강원도에 어떤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공소가 하나 있는데, 그 공소 이름이 ‘감사 공소’입니다. 보통 공소는 그 동네 이름을 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는 동네 이름을 따지 않고 그냥 ‘감사 공소’라고 불립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 군종 신부님이 같이 가던 부대랑 떨어져서 혼자 산 속을 헤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산 속을 한참 헤매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랍니다. 그 조그마한 움막 앞에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문을 열려다가, 또 모르잖아요, 그 안에 적군이 있을지. 전쟁 중인데. 그래서 가만히 몰래 그 집 안을 들여다 보니까 십자가 고상이 보이더랍니다. ‘어휴, 이제 진짜 살았다! 교우집 인가보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뭔가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구구절절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하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좋은 반찬을 먹기에 감사한가?’ 하며 구멍으로 봤더니, 밥상에는 커다란 누런 바가지에다가 물 잔뜩 떠놓고,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국도 없고. 그냥 맑은 물 한 바가지가 다였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시원한 물도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시원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식으로 하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그냥 하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더래요. 이 미국 군종 신부님이 그걸 밖에서 들여다보고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맞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저런 감사구나!’ 거기서 며칠 머무르다가 부대로 합류한 신부님은 미국에 돌아가서 이 경험을 가는 성당마다 강론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근처에 작은 성당을 세우고 싶다고 후원을 부탁하니까 순식간에 수만 달러가 모아졌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집터에다가 공소를 세우고, 그 공소 이름을 ‘감사 공소’라고 지었답니다. 이 지금까지도 ‘감사 공소’라고 불립니다.

어느 성당이든지 그 성당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되면 ‘감사 성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가족들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오면, 그 가정도 ‘감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늘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면, 그 삶은 ‘감사의 삶’이 되는 거죠. 올 한해 우리 성당 ‘감사 성당’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감사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곳에는 온갖 불신과 분열이 들끓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는데, 욕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났다는 교만과 고집이 가득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과 하느님을 바라보면,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다 감사할 것 뿐 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해를 시작하는 이 날,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모델 한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명하는 신앙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겸손’과 ‘순명’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순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겸손’과 ‘순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내 방법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하느님의 자리도 없고, 사랑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집니다. 항상 하느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느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질 나면, 하느님도 팽개쳐버리고, 신앙도 버립니다. 성당도 성질나면 그냥 안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가톨릭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순명’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줄 아는 마음이 겸손과 순명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고, 화나고 성질 나는 그 순간 순간에도,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이 성모 마리아였죠. 신앙의 모범이고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할 길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마리아께서 사셨던 ‘겸손’과 ‘순명’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도록 교회는 권고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참으로 평화롭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